

SMART BUILDING

유결 파트너
아이파크건축사사무소

Yoo, Kerl Partner
iArc architects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트윗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를 보여주는 많은 사진은 그가 핸드폰 (CELLPHONE)을 들고 있는 사진이다. 그런데 트럼프 같이 커다란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또는 어른이고 어린애고 간에 모두들 핸드폰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

핸드폰 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주위에 무엇을 먹을 지 또는 무엇을 입을 지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것은 산업혁명과 현대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온 혜택들로 인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이 기계로 재배가 되고 또 공장에서 가공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배송이 된다. 입는 옷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제품들 또한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통신이나 이동을 위한 수단 역시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때를 벗어났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건축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주거건축의 문제는 건축문제만으로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문제 그리고 정치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주거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주로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다. 건축의 문제는 곧 비용의 문제이다. 우리는 많은 고층의 공동주거 건축이 사방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늘 보고 지내지만 이렇게 공급되는 건축의 가격이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위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이 없어 길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집을 소유는 못하더라도 빌려서라도 살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집을 장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삶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터전인데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건축이 산업혁명과 현대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또는 모든 공공의 건축환경은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건축재료와 환경기술, 편리성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물 등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들이 너무 고가여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트럼프 타워나 한남동의 고급주거지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 몇몇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가보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갖는 것이 부의 표상 같은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를 않는다. 내가 주거건축과 자동차의 가격을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을 넘은 것이 오래전 일이다. 이 돈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세단을 십여대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자동차가 제공하고 있는 환경의 질은 건축환경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는 다. 더구나 자동차는 복잡하고 고가의 동력장치까지도 다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래서 미국에는 자동차에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자 문제를 시정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곳도 있다. 자동차의 가격과 건축의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 건축 관련 산업의 무책임을 느끼기도 한다. 자동차 생산자들은 자동차의 무게를 한 톤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그 동력의 효율을 한 톤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다. 구매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건축도 사용자의 관심을 사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건축은 수요자의 편이 되기 보다는 공급자의 편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건축도 현대 산업의 한 축으로 들어가고 건축의 수요자가 건축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현대건축은 고전시대의 복잡하고 웅장한 건축을 단순화 시키

고 인간화 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건축가들은 건축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건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료도 기술도 이들은 갖고 있지 못했다. 지금도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집이 어떻게 쓰일지 용도계획을 하느라 연관문제를 연구하고 건물이 들어설 대지와 그 주위를 조사 연구하여 어떻게 건물을 놓아야 가장 좋을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연구 하느라 건축가들은 엄청난 공을 들인다. 이렇게 매번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한 이 연구들은 다음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반복 사용되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용도와 토지에 맞는 연구는 반복된다. 이런 반복되는 연구나 시간투자는 창작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없는 비용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건축이 싸지지 않는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맞춤형 옷이나 맞춤형 음식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초 고가의 것으로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일반형 공장 옷이나 공장음식으로 일상생활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원하지 않는 맞춤형 건축 공간에서 살고 있다.

건축은 비싸고 사용자들은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삶을 희생한다.

건축은 너무 무겁다. 건축은 그 무게에 대하여 일체 관심이 없다. 더 무거운 것이 더 좋은 것으로도 생각한다. 건축의 비용이 낮아지기 위하여 건축은 가벼워져야 한다. 더위나 추위를 막기 위하여 건축은 어마어마한 표피를 사용한다. 나는 건축이 자동차나 비행기에서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이 튼튼하고 견고하지가 않아서 오래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지은 건축이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것은 건축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건축은 스스로 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변하기가 쉬워야 한다. 짓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분해와 재조합이 수월하여야 건축은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현장에서 한 덩어리로 부어진 형태의 건축은 튼튼해 보이지만 곧 새로운 삶이나 취향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 폐기처분 되는 것이다. 나는 건축을 산업제품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많은 건축가들이 연구에 연구를 모아서 만들어낸 살기에 편한 산업제품이 되었으면 한다. 환경조절 성능이 뛰어나서 좋은 자동차나 냉장고의 성능과 경쟁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 수가 있게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은 자족하는 제품이 되어서 땅이나 인프라로부터도 자유로운 물건이 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한다. 건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건축을 위하여 땅을 파헤치는 일도 중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건축을 나는 SMART BUILDING 이라고 부른다. 



Yoo, Kerl

Partner
iArc architects

지난 40여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건축설계 활동을 한 건축가 유걸은 1998년부터 3년 연속 미국 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하였고, 김수근 건축상과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아이아크건축가들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설계한 밀알학교는 KBS선정 한국 10대 건축물이며 미국 건축사 협회상, 김수근 건축상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건축사(AIA)이다.

Kerl Yoo has been working for 40 years as an architect both in the U.S and Korea. His architecture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AIA Honor Award, Kim Soogeun Award,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s and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s. Miral School, one of his most famous designs, has been chosen for the 'Korean 10 best buildings' by KBS. He is currently the founding partner of iArc Architects. Kerl Yo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d taught at several universities in Korea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주)아이아크 공동대표 1995-현재
Founding Partner, iArc Architects, 1995-Present